



중진공, '수출바로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수출바로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선정까지 1개월 이내 신속하게 바로(Barrier Zero) 지원한다는 의미로,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중진공



한식진흥원-종로구, '평생교육센터' 운영 맞손

한식진흥원은 종로구와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식진흥원은 '가회동 평생교육센터'로 지정되어, 한식 관련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왼쪽), 전해웅 한식진흥원 사무총장이 종로구와 '2025년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한식진흥원



NH농협생명, FC·DM채널 연도대상 시상식

NH농협생명은 지난 10일 영종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FC·DM채널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2024년 한 해동안 우수한 실적을 거둔 FC, DM 채널의 설계사와 영업관리자, 지점장 등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FC채널 연도대상 수상자인 세종천안 지점 유순자 FC(왼쪽 첫번째)와 DM채널 최우수상 수상자인 서울북한지점 김동섭 FC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생명



용마로지스, 5년 연속 택배서비스 평가 'A+ 등급'

용마로지스는 종합 물류 전문회사 용마로지스가 '2024년 택배 서비스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의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택배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 용마로지스는 기업택배 부문에서 A+등급을 획득했고,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마로지스



OCI홀딩스,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 봉사활동

OCI그룹 임직원들이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와 함께 달리며 가이드러너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OCI홀딩스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소외계층돕기 제13회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서 임직원 및 가족 80여 명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가이드러너, 플로깅 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OCI 임직원과 시각장애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OCI홀딩스

유한양행,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확대... ESG 경영강화

창립 99주년... 나눔·환원 정신 계승
다문화 아이들 위한 동화책 낭독
서울 노을공원에서 나무 심기 등 활동

유한양행이 올해 창립 99주년을 맞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가운데,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한양행 사업장별 봉사단은 상시 운영되어왔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지속 활발해지고 있다.

유한양행 임직원들은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낭독봉사단, 취약계층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하는 제빵봉사단,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달리는 가이드 러너 봉사단, 유기견·유



유한양행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결성하고 서울 여의섯강에서 연 4~5회 생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유한양행

기묘 봉사단, 학습 도우미, 스포츠 멘토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은 올해 2월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환아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투병생활을 지원했다. 3월에는 전 사업장에서 현혈 캠페인을 실시했고 현혈증은 소아

암 환아들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서울 노을공원에서 임직원이 직접 나무를 심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임직원 가족도 동참해 도시 녹지 조성, 탄소 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등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농심, 2025 육상대회에 '백산수' 후원

구미야육상경기선수권대회 스폰서십 맺고 선수들에 생수 제공

농심은 지난 9일 구미시청에서 '2025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스폰서십을 맺고 대회 기간동안 선수들에게 제공할 공식 생수로 백산수를 후원한다고 13일 밝혔다.

2025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육상연맹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육상대회로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구미시 민운동장에서 열린다.

농심은 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 45개국 선수단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대회 기간동안 약 5만 병의 백산수와 파워오투 등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아시아 최대 육상 축제인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백산수를 후원하기로 했다"며, "40년의 자연정수기간을 거치며 천연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한 깨끗한 물 백산수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1990년부터 구미시에 국내 최대 라면공장인 구미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심 구미공장은 2023년 기준 연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며 구미시 대표 1위 식품회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주민 고용 및 구미라면축제 참가 등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한화

김승연,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방문

(한화그룹 회장)

한화 이글스 창단 40주년 축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난 11일 한화 이글스 야구단 창단 40주년과 신축 야구장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방문했다.

김승연 회장은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팬과 함께 이글스 40년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최강한화'의 뜨거운 함성에 가슴 뛰는 이글스만의 스토리로 보답하자"고 격려했다.

김승연 회장은 이글스 창단 이래 40년간 구단주를 맡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는 한화이글스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소문난 야구 마니아로 자주 야구단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팬들과 호흡하고 있다.

지난해 김승연 회장은 정규 리그 기간 중 9차례나 대전 이글스 홈 경기장을 찾았다. 방문 시 평소보다 높은 승률을 거둬 팬들로부터 김 회장은 '승리 요정'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활동가 육성

'그린벨류 유쓰' 발대식

LG생활건강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2025 그린벨류 유쓰(YOUTH)'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기후환경 활동가 육성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린벨류 유쓰(YOUTH)는 LG생활건강이 에코맘코리아,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부와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린벨류는 친환경 가치라는 뜻이다.

LG생활건강은 환경의 소중함을 차별적 고객가치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 '글로벌 에코 리더'라는 명칭으로 청년 활동가 발굴에 주력했고 2022년부터는 20세 이상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생과 영국, 프랑스, 타이완 등 다양한 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 청년 등 총 101명을 선발해 20개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기후



LG생활건강은 '2025 그린벨류 유쓰(YOUTH)'를 통해 국내외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대학교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의 글로벌 캠페인 '타이드 터너 플라스틱 챌린지(환경을 바꾸는 주역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도 동참해 폐기물 문제와 방안 모색에도 집중한다.

또 올해 사업은 멘트 프로그램이 보강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이 각 팀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기획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이청하 기자

풀무원, '김치 REMIX' 행사 진행

뮤지엄김치관 재개관 10주년 기념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온 풀무원 뮤지엄김치관이 재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재개관 10주년 기념 행사 '김치 REMIX (feat. 뮤지엄김치관)'를 진행한다

뮤지엄김치관은 2015년 4월 21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으로 이전·재개관해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뮤지엄김치관은 '어린이 김치학교'를 통해 10년간 약 6만명의 아이들에게 김치와 김장문화를 알려 왔다.

뮤지엄김치관은 재개관 10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일반행정정책관 이용석 △안전환경정책관 송기진 △청년정책협력관 류승묵 △규제총괄정책관 권혜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장 김규형 ◇과·팀장급 △초광역협력과장 최태용

부음

▲김석환씨 별세, 김기세(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김기배(전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장)씨 부친상, 김영호(경기일보 서울본부 정치부 기자)씨 조부상 = 13일,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05호, 발인 15일 오후 2시, 장지 승화원. 031-218-6560

/신원선 기자